2007
제16회 졸업 특집
월드미션 헤럴드
World Mission University
설교대회
World Mission University
www.wmu.edu

목차

1 들어가기

2007년 제 16회 졸업생 명단 / 2
총장훈화 – 임동선 박사 / 8
부총장 훈화 – 강준민 목사 / 9
명예박사학위기 – 윤병욱 / 12

선교지에서 보내는 편지 – 유정수 목사, 유혜란 선교사 / 13
아프리카 복음화는 우리가 이룬다 – 남아공 박창식 선교사 / 17

2 학교소식

학생 산상기도회 / 22
제2차 북미주 교회 선교 지도자 대회에서 학교 홍보 / 22
신학교와 지역교회가 함께하는 "선교 훈련원" / 22
단기선교 / 23
설교대회 / 23
졸업생 – 목사안수식 / 23
2007년도 여름학기 및 가을학기 개설과목 / 25

3 음악과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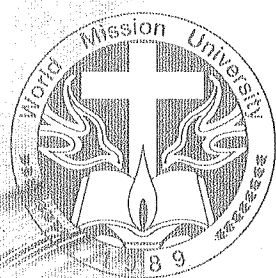
/ 28

4 학생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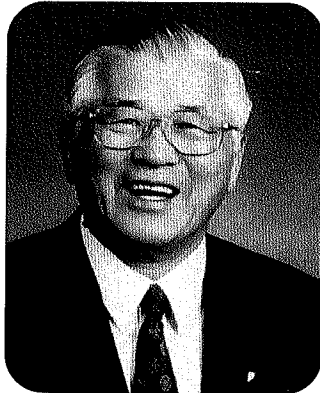
사라의 딸들이여 – 이인미 / 30
중보기도팀 – 최자란 / 31
지난 임기를 돌아보며 – 김덕호 / 32
새벽의 약속 – 이강천 / 34
월드미션과의 만남– 이기영 / 36
졸업을 앞두고 한 해를 뒤돌아보며 – 김용일 / 38
음악과에서 보낸 시간 – 김정신 / 40
주님이 받으시는 기름 – 이홍주 / 42
학생들의 어렸을 때 모습 / 44

5 월드미션대학교 후원자명단

/ 48

발행인 임동선
편집인 최선영, 윤명주
발행일 2007년 5월 31일
발행처 월드미션대학교 / 신학대학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5.2322 Fax) 213.385.2332
Website: www.wmu.edu E-mail: info@wmu.edu

1 들어가기

총장 임동선 박사

실력과 복음을 겸비한 지도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28:20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말씀과 빌립보서 4:13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16회 졸업생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와 가정은 해체되고 개인의 소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가상의 세계에서 또 다른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변화와 속도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절대의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시대를 읽는 안목과 관계중심의 지도력, 그리고 복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졸업생들은 이전보다 시대를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과 문화 및 역사의 흐름, 그리고 시대의 요구를 올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는 노력과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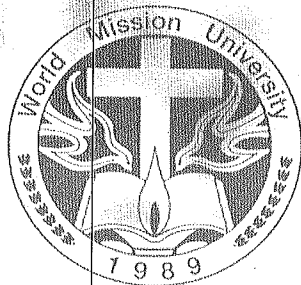
또한, 관계중심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의 만남을 더욱 소중히 하여야 합니다. 감성을 더욱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목회·사역을 해야 합니다. 다양성을 중시하며 각자의 개성과 독특함을 존중하는 목회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아무리 변화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더욱 굳건하게 잡아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 사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20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말씀과 빌립보서 4:13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인도해 나갈 지도자들입니다. 복음의 전문가가 되고 시대를 보는 통찰력과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졸업 후에도 지성과 인격, 영성을 계속해서 가꾸며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깨끗하고 희생적인 선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굳게 잡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안목과 지도력으로 무장하여 지구촌 곳곳의 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세계를 복음화하는 충성된 일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총장 강춘민 목사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라' 는 말씀은 '성경의 사람이 되라' 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성경만은 통달해야 합니다.

졸업하는 분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졸업의 영광을 얻기 까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졸업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땀과 눈물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졸업생들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 글을 드립니다. 졸업의 기쁨을 온 가족과 함께 누리도록 하십시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졸업하는 자신을 축하해 주십시오. 졸업하는 자신에게 상을 주십시오. 졸업의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졸업생들께 마음 깊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리가 한 말씀입니다.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라' 는 말씀은 '성경의 사람이 되라' 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성경만은 통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통달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셨고, 암기하셨고,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거듭 주님이 사용하신 것은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통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을 통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평생의 과업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달하고 싶은 열망은 하나님의 사람이 꼭 가져야 할 거룩한 열망입니다.

성경을 통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깨닫는 깊이와 함께 성경을 읽는 양도 중요합니다. 깊이와 양은 같이 만납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음은 열림입니다. 깨달을 때 말씀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깨달음은 연결을 맺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가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경험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신약과 구약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 속에서 신약이 보이고, 신약 속에서 구약이 보이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깨달음의 경험입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안에 만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예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성경을 통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을 뿐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합니다. 성경 암송은 영성의 기초이며 또한 가장 탁월한 영성의 경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성경을 암송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성경 암송은 어린이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암송은 제자 훈련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탁월함은 성경 암송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부요는 그 마음의 곳간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쌓아 두었느냐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가 암송하지 않은 말씀이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길 즐겨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상기자(reminder)이십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는 주제별로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는 다양한 주제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길은 주제별로 성경을 암송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주제별로 암송하고 있으면 말씀을 전할 때나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본을 든든히 하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은 거듭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를 다집니다. 초심자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 암송은 기본이요, 초심자의 마음을 가꾸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성경 암송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 암송을 통해 깊은 묵상에 이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지성이 개발되고, 영성이 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존재가 넉넉해지고, 변화와 성숙에 이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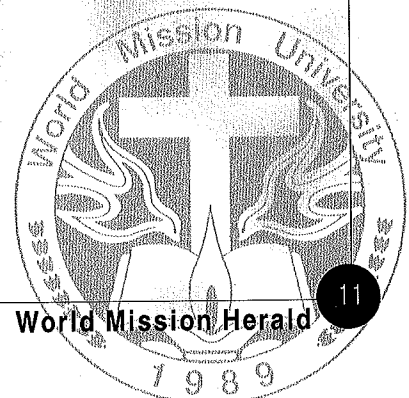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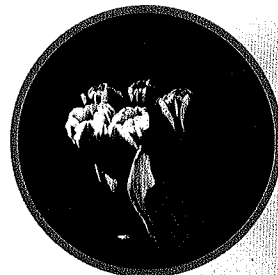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의 원천을 아는 사람입니다. 능력의 원천으로 거듭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의 원천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의 원천과 멀어지는 데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을 멀리하는 데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사울 왕은 말씀을 버림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삼상 15:23). 말씀을 붙잡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했습니다(행 18:5).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말씀에게 소유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의 수레가 되길 힘쓰십시오. 또한 바울의 권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십시오.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되라는 말씀은 오직 한 권의 책만 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 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가 한 권의 책이 되기를 열망할 때 그는 이미 만 권의 책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책을 읽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론을 성경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사로잡아 오기 위해서입니다(고후 10:5). 또한 성경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책 중에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길이 보입니다. 말씀이 곧 길입니다. 길은 도입니다. 예수님은 도(道)를 말씀하셨습니다(막 2:2). 길 되신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요 14:6).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길을 만납니다. 길이 열립니다. 길을 잃으면 방황합니다. 그러나 길을 찾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길을 보여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길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통할 때 우리는 도(道)와 통하는 것입니다. 도통(道通)은 오랫동안 수양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道)가 되시는 예수님과 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통(spiritual awakening)의 세계는 한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실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 일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한 번 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부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빕니다.
강준민드림

윤병욱

명예박사학위기

<미주생활정보> 1977, <미주한인이민100년사> 2002, <미주한인사회와 독립운동1> 2003, <사진으로 보는 미주한인100년사> 2004 등을 발행했으며, 2006년도에 저술한 <나라 밖에서 나라 찾았네> 가 재외동포재단 추천도서로 지정되었다.

본 대학교는 제 16회 학위수여식에 즈음하여 윤병욱님에게 명예 인문학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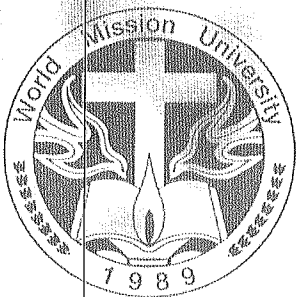
윤병욱님은 충남 서산 출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1962년 졸업하고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로 재직하던 중 1965년 주미특파원으로 도미했다. 유타주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1967)를 받았다.

흥사단 미주위원부 위원장(1972~1973), 남가주한국학원 이사장(1979, 1982, 1987), 남가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1976~1977)을 역임했다. 재미실업모국방문단장으로서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주재 미국상공회의소와 협력의정서(1976)를 체결하고 재미실업인의 모국방문을 정례화했다. 대한민국 석탑산업훈장(1978), 대통령포상(1982)을 받은 바 있으며, Wilshire State Bank 창립이사(1981~1984) 을 역임했다. PioPico Koreatown시립도서관 후원회장(1993~1994), 한미동포재단 이사장(1995~1996), 미주한인이민100주년 기념사업회 남가주대표회장(2002~2004)을 역임했다. 2004년 Yuin University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개척자상(2004)을 수상했다. 2004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미주한인의 날' 을 법제화 하는데 기여했으며 미주한인재단 전국명예회장(2003~2004)을 거쳐 2005년 전국총회장으로 선임되어 매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미연방 상하원(결의안 SR-283, HR-487)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공헌했다. 현재 미주한인의 날 전국확산을 위해 활동 중이다.

<미주생활정보> 1977, <미주한인이민100년사> 2002, <미주한인사회와 독립운동1> 2003, <사진으로 보는 미주한인100년사> 2004 등을 발행했으며, 2006년도에 저술한 <나라 밖에서 나라 찾았네> 가 재외동포재단 추천도서로 지정되었다.

본교는 박사학위 수여 규정에 따라 교수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윤병욱님에게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2일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동선 박사

유정수 목사, 유혜란 선교사

유 정 수

M.Div.13회 졸업

흘러가는 냇물에 따뜻한 빵조각을 계속 던지는 심정으로 이곳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냇물에서 빵을 먹고 자란 물고기는 분명히 성장하여 큰 물고기가 되고, 큰 강물로 내려가서 큰 리더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온 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익혀 가면서 힘들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코스타리카 땅에 사역의 텃밭을 갈아두시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추수할 사역자가 필요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0여년 전만해도 이곳 코스타리카 땅은 군인도 없는 아름다운 남미의 스위스라는 별명을 가졌던 평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위 국가의 내전으로 인해 니카라과이 및 주위 나라의 난민과 쿠바 난민을 합하여 100만 여명이 모여들면서 범죄 집단이 생겨났고 이들의 생존경쟁으로 인해 도둑과 살인과 강도와 마약이 사회의 큰 문제로 두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난민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현장은 인간으로서 차마 겪을 수 없는 삶을 살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로부터 올라오는 마약의 통로가 되어있는 이곳은 20센트만 주어도 마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소년으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마약 중독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1960년대와 21세기가 공존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온 지가 8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아서 무슨 성과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바나바를 묶어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언어 연수원 선배이신 미국인 선교사님과 현지인 동역자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팀사역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텃밭에 팀사역으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얹어가며 배우고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역자님들께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팀사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Drug & Alcoholic Rehabilitation Center'에서 성경공부와 의료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알콜 중독자 남자들이 모여살고 있는 갱생원입니다. 21명의 갱생원 청, 장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성경을 배워가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언어와 행동과 습관들이 놀랍게 변하여 가정으로, 사회로,

일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섭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하며 우리는 감격의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Orando' 라는 청년이 수료과정을 이수하여 이곳 'Guadalupe' 에 있는 현지인 'Victor' 목사님 교회에서 졸업식을 하고 간증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Orando'는 졸업을 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후배 청년들을 돌보며 함께 생활하겠다며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멤버가 한 사람 더 늘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의 우리 21명 가족의 모든 심령을 터치하시고 이 영혼들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곳 'Drug & Alcoholic Rehabilitation Center' 의 21명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난민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급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는 교복과 신발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교복과 신발을 나눠주었습니다.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말씀들이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기도하면서 열심히 심어가고 있습니다. 3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들이 50~60여명이 모이는데 어머니들이 함께 나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장소가 허락되면 어머니 성경공부반도 만들어서 아픔이 많은 이곳 난민촌의 어머니들을 Q.T 나눔방으로 이끌고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어린이 중에서 단 한명의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시켜도 이곳 가정들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출할 수 있을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냇물에 따뜻한 빵조각을 계속 던지는 심정으로 이곳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냇물에서 빵을 먹고 자란 물고기는 분명히 성장하여 큰 물고기가 되고, 큰 강물로 내려가서 큰 리더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난 번 4월 9일부터 4월 12일에는 니카라과이에 가서 그곳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폐품들을 수집하고 있는 그들에게 물과 Hand Senitizing Wipes 와 전도용지를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삶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들도 주님의 자녀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합니까? 38C~40C가 되는 땡볕에서 배가 고파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인간들이 먹다버린 쓰레기를 주워먹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셨습니까?"
절반은 썩은 파파야 한쪽을 든 소년이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해 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셨습니까?"
까만 쓰레기 먼지로 눈만 반짝이는 어린아이들을...
"주님은 보셨습니까?"
목말라 입술이 터진 아낙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셨습니까?"
질퍽거리는 쓰레기더미에 묻혀사는 그들의 삶을...
"주님은 보셨습니까?"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와 악취에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주님은 보셨습니까?"
이들을 이렇게 살게하는 사회주의의 위정자들의 삶을...
"주님은 보셨습니까?"
이런 삶을 살게하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주시고 이들의 삶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눈물과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고 빨갛게 익은 얼굴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잠깐이라도 이들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올 것을 약속하면서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지치고 일그러진 얼굴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자들에게 향하신 최종적 목적은 이러한 선교, 구제, 봉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 를 드리도록 한 것이 목적이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으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역자님들께서도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 사역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 마약 알콜 갱생원들의 삶이 변하도록
※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 5월2일부터 5월 4일까지 격리되고 소외된 딸라망까 와이미 인디언 종족을 섬기러 갑니다. 기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동역자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복음화는 우리가 이룬다

남아공 박창식 선교사

박 창 식
M. Div. 원격교육과정 재학

저희를 향한 후원교회와 형제자매들의 헌신은 저희로 안정된 가운데 사역을 하게 합니다. 오늘도 캠퍼스의 교수, 교직원, 학생들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간절히 바라며 형제들과 함께 캠퍼스를 걷는 가운데, 더디게 느껴지지만 제자를 재생산하는 사역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미래가 밝아옴을 느낍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이들이 남아공의 주요대학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라치면 잔디밭 작은 나무 앞에 항상 눈에 띄는 닮은 두 아이가 있습니다. 무표정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한 명은 가만히 서있고 또 한 명은 그 주위를 서성거리곤 합니다. 어느 날 무심결에 우리 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다은혜, 저 아이들이 왜 매일 저곳에 있지? 매일 보는 것 같다." "응,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쌍둥이 딸은 아빠가 데려갔고 남동생은 엄마가 데려갔대. 근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동생 데려오는 엄마를 보려고 늘 저렇게 서있는 거래..."

"우리 학교에 에이즈고아가 9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돌보아야 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군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인 피터가 제게 한 얘기입니다. 신문의 첫 페이지부터 온통 범죄 사건사고로 얼룩지는 날이 많은 남아공이지만, 남아공이 아프리카 관문나라이고, 또 가우텡주는 남아공의 관문도시라고 하나님께서는 2005년 7월에 저희를 이곳 대표수도인 프레토리아에 보내셨습니다. 통계적으로 기독교인구는 약80%에 육박하지만 순수한 신자는 10%가 될까말까하다는 나라에 말이지요.

저는 차가 구입이 되자마자 캠퍼스에 나가서 약속의 말씀(창12: 1-3, 사58: 9-12)을 주장하며 기도를 쌓고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수1: 3)', 첫해 성탄절 연휴에 6500Km를 운전하여 남아공의 주요대학을 방문하며 그 언젠가 각 대학들에서 제자 삼는 사역이 힘있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집에 데리고 살면서 또 사역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통하여 언어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사역을 하지만 아프리칸스와 공식 부족어(9개) 가운데 한두 개도 차차 배워가야 하리라 봅니다.

어제 금요일에는 저녁 시간에 두 곳의 캠퍼스에서 모인 7명의 형제들이 새롭게 마련된 보금자리인 캠퍼스 강의실에서 성경공부를 하였습니다. 성경공부 시작 전에 타우형제와 개인교제를 하였습니다. "타우, 나누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난 일주간을 홈(선교관)에서 형제들과 생활하고 캠퍼스에 나왔는데 제가 얼마나 민감해졌는지 비루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또 이전의 좋았던 친구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쓴 결과 영안이 밝아지고 무디었던 양심조차 새롭게 된 이유이겠지요. 지난 1년 9개월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로부터 3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4대가 형성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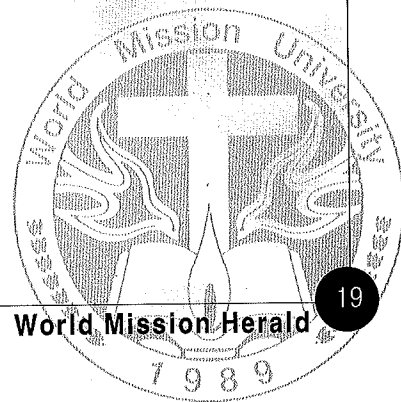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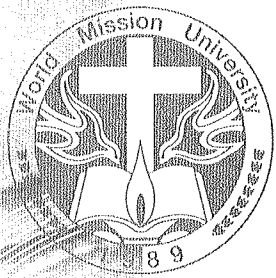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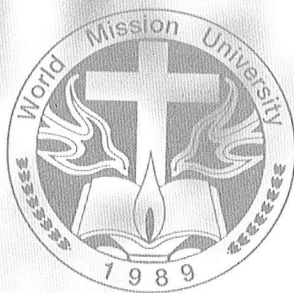
타우는 처음 만날 당시 대학 4학년생으로 영어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맡아 생애 처음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잘 받아주었는지! 아이들이 참 편안해 했고, 마음껏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터준 장본인입니다. Mrs. 박이 감격해서 매일 아이들 것과 함께 점심도시락을 싸서 보내어 주었지요.

나와 연결이 되어 교제를 시작했을 때는 일주일에 삼 일을 새벽 5시에 만나 캠퍼스에 가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 새벽에 안 만나는 시간은 오후에 그의 집에서 만나 함께 성경을 읽었지요. 급기야는 타우가 병이 나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였고, 사귀던 여자친구는 타우의 급격한 변화에 눈이 휘둥거래져서 떠나 버렸고, 그리스도인인 엄마조차 나와의 만남을 그만두도록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6개월 쉬었다가 다시 교제가 회복되면서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극복할 줄 아는 충성된 형제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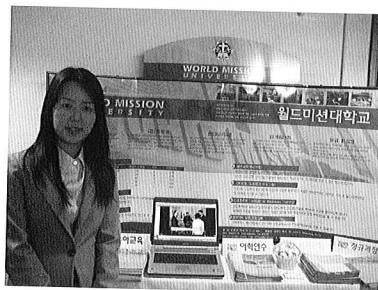
아내가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신호등 앞에서 강도가 조수석 유리를 깨고 얼굴을 들이밀어 가방을 빼앗아 가는 통에 없어진 소지품들과 각종 증명서들 뒷수습하느라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요.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여전히 건강하고 사역의 기둥이 될 기초들이 놓여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늘 도전을 주시고 지식을 업그레이드해주시는 WMU의 교수님들 또한 이곳 선교사역에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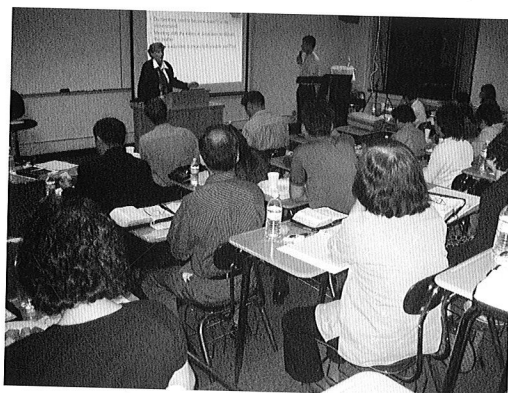
일어나자 마자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강준민교수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는 귀한 모습이지요. 임동선 총장님이 거의 평생 동안 매일 신약10장, 구약10장을 읽으신 내용을 예로 드시면서 그토록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싶어하신 남종성교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도 느껴져서 성경말씀을 섭취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우리 총장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공부 중에 교수님들을 통하여 알게 된 총장님에 흠뻑 빠져서 총장님 강의 내용 중에 예화와 교훈은 다 기록하여 별도로 보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달리 강의를 많이 해주신 신선묵교수님은 리더십과 은사에 대해 참으로 알차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젊음의 열정을 온통 강의에 쏟아 부으시는 구약학의 김선익교수님은 대단히 목표지향적이신데 우리 학생들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트 시키실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달리 학생들에게 사랑을 많이 쏟아 부으실 것 같은 임성진교수님, 교재 전달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손수 뛰어드셔서 해결해주신 변명혜 교수님, 충성된 이지희 전도사님. 이분들을 한 번도 뵙지 못하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참 많이들 뵙고 싶습니다.

저희를 향한 후원교회와 형제자매들의 헌신은 저희로 안정된 가운데 사역을 하게 합니다. 오늘도 캠퍼스의 교수, 교직원, 학생들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간절히 바라며 형제들과 함께 캠퍼스를 걷는 가운데, 더디게 느껴지지만 제자를 재생산하는 사역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미래가 밝아옴을 느낍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이들이 남아공의 주요대학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남아공에서 교육받고 있는 각국의 대학생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아프리카 전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또한 저희 부부와 형제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도록, 이번 텀에는 동참하는 자매들이 생기고, 연말까지는 백인형제자매들도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유난히 자존감이 낮은 남아공의 흑인형제들과 하나되어 오늘도 우아한 모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I can! You can! We can in Christ!

2 학교소식

학생 산상기도회

지난 2월 20일에는 샬롬기도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가졌다. 손진락 선교학교수가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참석자가 합심하여 학교와 총장님 및 교수진, 이사진과 기도후원회, 학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 2차 북미주 교회 선교 지도자 대회에서 학교 홍보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에 Korean Inter-Mission Network주최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북미주 한인교회의 향후 백년 선교를 준비하는 '제 2차 북미주 교회 선교 지도자 대회' 에서 동 대학의 선교 전공담당 손진락 교수와 원격교육을 담당하는 이금희 교수 및 이지희 통신과정 과장이 목회자 및 선교 담당사역자를 대상으로 월드미션대학교의 학교입학과 전반적인 학위취득과정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신학교와 지역교회가 함께하는 "선교 훈련원"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동선 박사) 부설 선교훈련원에서는 2007년 4월 30일(월)부터 6월 4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6주간 선교 훈련원이 개원되었다. 지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 가동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선교 사역의 동반자 역할을 담당하고자 개설된 이 선교훈련원은, 동양선교교회(담임 강준민 목사),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 그리고 C&MA(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한인총회 서부 지역회(회장 김갑선 목사) 산하 남가주 휄로우쉽 교회(담임 고신원 목사), 나성 생수의 강 교회(담임 김갑선 목사), 로스엔젤레스 희망의 교회(담임 이경환 목사) 등 지역교회가 협력함으로써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번 선교훈련원에서는 풀러 신학대학원 선교학부 교수인 박기호 박사의 "타문화권 단기 선교사의 자질과 준비," Elizabeth Glanville 박사의 "선교와 팀사역," Roberta King 박사의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 이광길 박사의 "선교학의 실용성," 월드미션대학교 선교학과 교수인 손진락 박사의 "선교현장의 언어습득과 문화이해," 대학 캠퍼스 사역을

오랫동안 해 오신 김동환 목사의 "대학생 선교의 선교 전략적 가치와 의미" 라는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40여명의 성도들이 수강을 신청하였다. 특별히 선교훈련원을 마치고 난 후에는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 2007년도에는 몽골 지역 우물파기 선교를 9월 중에 다녀 올 예정이며 남가주 휄로우쉽교회와 지역교회가 함께 한다.

단기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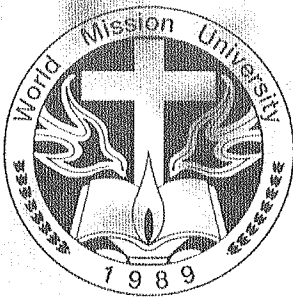
월드미션 대학교에서는 2007년 여름 단기선교로 알라스카와 중국을 다녀 올 예정이다. 6월 18일(월) – 23일(토), 1주간 일정의 알라스카 단기선교 팀은 신선묵 교수의 지도로 이기영 학우 외 10명이 Athabascan 종족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운영과 개인 상담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있는 삶을 안내한다. 한편 6월 18일(월) – 27일(수), 9박 10일간 일정의 중국 선교팀은 손진락 교수의 지도로 최준영 학우 외 5명이 북경, 연길, 도문, 백두산, 단동 및 심양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펼쳐지는 동문 교회들의 선교 사역지와 신학교를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두만강과 그 건너 북한 땅을 향한 기도 정탐 사역을 할 예정이다.

설교대회

지난 5월 1일(화) 교내 설교대회에 고정석, 김수현, 노명철, 오광탁 학우가 참여하였다. 설교제목은 순종(고종석, 마 27:46), 승리하는 삶(김수현, 딤전 1:11–16), 예수의 옷을 입어라(노명철, 엡 4:21–24), 아버지의 사랑(오광탁, 눅 15:11–32)이다.

졸업생 - 목사안수식

올해 졸업생인 장재영 동문이 3월 11일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미국남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장동문은 동교회에서 6년째 한어대학부에서 사역중이다. 안수식은 교회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진행되었는데 장동문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료 사역자 2명과 함께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다. 장재영 동문은 '월드미션대학교가 자랑할 수 있는 졸업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 소감을 밝혔다.

또, 지난 5월 15일(화) 샌디에고 한빛교회에서 '세계복음연합회(WEMA)' 의 목사안수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희선교사(중국), 최영희선교사(중국), 임양택전도사(LA 소망교회), 박인호전도사(LA동양선교교회), 유동근선교사(세계로선교회)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세계복음 연합회(WEMA)' 목사안수자 명단

임양택 전도사
(Im, Yang Taek)

인천기능대학
월드미션대학교
(BA/MDiv)
LA 소망교회 전도사

유동근 전도사
(Yoo, Dong Keun)

창원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MDiv)
세계로선교회
부산 A지구 대표간사

오성권 전도사
(Oh, Soung Kwon)

쌍파울 MAUA공대학교
쌍파울 침례교 신대학
(Th B./ Th. M과정중)
Rio OMC 담임교역자

김수연 전도사
(Kim, Su Yon)

침례신학대학교
Servo de Crito 신학대학교
(MDiv)
쌍파울 OMC 청년부 담당

박인호 전도사
(Park, In Ho)

경상대학교
S. California Seminary (MA)
월드미션대학교(MDiv)
LA OMC 사역지원실

이석현 전도사
(Lee, Seoghyeon)

University of Kentucky(BS)
Westminster Seminary
(MDiv/ThM)
Trinity Evangelical School
(ThM)

김영희 선교사
(Jin, Ying Xi)

중국중학교 교사 역임
월드미션대학교 (MA)
중국목단교회
담임교역자

최영희 선교사
(Choi, YoungHee)

칼빈대학교(BA)
Houston G. School of
Theology (MA)
월드미션대학교(MDiv)
Xi Shuang Ban Na
민족사역

2007년도 여름학기 및 가을학기 개설과목

2007년도 여름학기 특강은 5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3과목이 개설되었다.
학부 및 대학원 과정: 가족치유(Peter Kang), 헬라어 I(김선익), 사회학 개론(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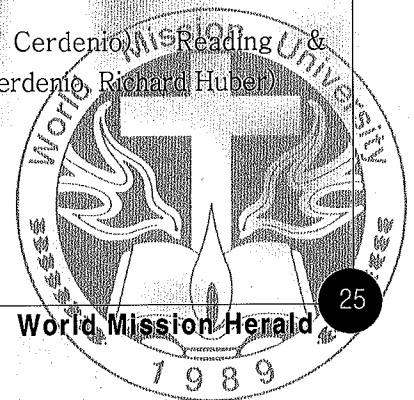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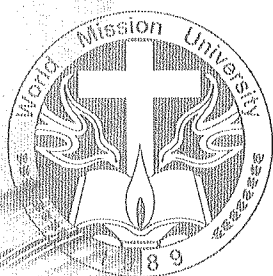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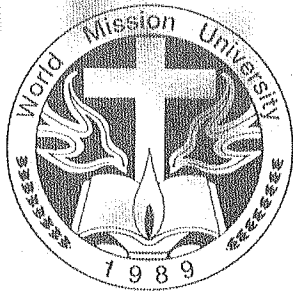
2007년도 가을학기는 8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에 총 34개 강의가 개설되었다.

현재 본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 개설된 과목은 다음과 같다.

학부과정
공통: Introduction to Computer(Paul J. Lim), Essential Qualities of a Christian Counselor(Joshua Pak), Cultural Anthropology(JinRag Son), General Epistles(Edmund Rhee), English Reading(Grace K. Lee), Homiletics(Paul D.S. Lim), Holy Writing(SunIck Kim), Gospels(John Park), Research & Writing(Edmund Rhee), Study Skills(JongSung Nam), Introduction to Leadership(Paul S. Shin)
음악과목: Sight Singing & Aural Skills II(Jenni Brandon), WMU Choir(ImSang Yoon), Keyboard Harmony I(Jesse Wright-Fitzgerald)
On-line class: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JongSung Nam)

대학원과정
공통: Introduction to Computer(Paul J. Lim),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John McKenna), Systematic Theology II(SungJin Lim), General Epistles(Edmund Rhee), Theological English I(Grace K. Lee), Preaching Practicum(SungJin Lim), Contemporary Theology(Seog Whan Cho), Theology of Mission(Paul S. Shin), Gospels(John Park),Thesis Project/Thesis(SungJin Lim), Advanced Research & Writing(Edmund Rhee), Learning Methods(JongSung Nam), Advanced Skills & Qualities for Christian Counseling(HyeJeong Kim)
음악과목: WMU Choir(ImSang Yoon), Analytical Study of Music(Jesse Wright-Fitzgerald), Piano Accompanist(Susan Svrcek), Cantata & Oratorio(Kathleen Roland), Choral Literature I(ImSang Yoon)
On-line class: Contextualization(JinRag 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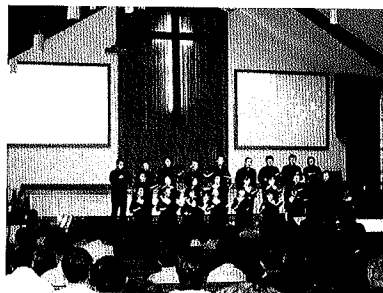
유아교육 자격증과정: 유아 창의력 개발(홍은주), 유아교육 교과과정 및 교습(서규희), 가정·학교·사회생활(홍은주), 유아 교육 행정(안송주),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김영주), 유아성장 발달(안송주)

집중영어교육과정: Listening & Speaking(Rachel Cerdenio), Reading & Writing(Richard Huber), Grammar, Vocabulary(Rachel Cerdenio, Richard Huber)

3 음악과 소식

음악과 소식

학기를 거듭 할수록 음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음악과는 이번 2007년 봄학기에도 크고 작은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7일 미국 성악교수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Singing)가 주관한 성악콩쿨에서 음악과 석사과정의 소프라노 김희경 학우가 영예의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수한 교수의 가르침과 좋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빚어낸 음악과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쁨도 크지만 학교로서도 짧은 역사 가운데서 얻어낸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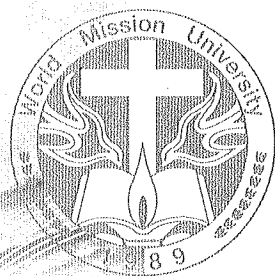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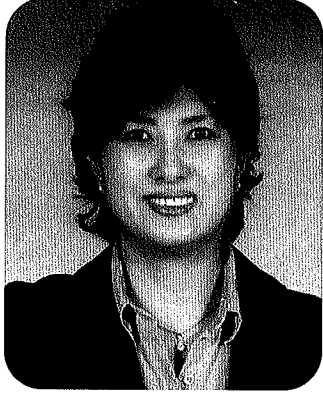
지난 4월 1일에는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음악과의 제 4 회 정기연주회로 모짜르트의 '레퀴엠(Requiem)'을 800여 좌석을 가득 매운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음악과의 30명의 챔버 콰이어와 30명의 오케스트라를 음악과장 윤임상 교수님의 지휘로 연주했으며 특히 세계적인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님을 특별 초청하여 더 수준 높은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악과는 4월 29일 동양선교교회에서 학생들의 기량을 한껏 발휘하는 'Music Festival of Students'를 열었습니다. '사랑과 고백'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 그리고 뮤지컬 곡들로 꾸며진 이 연주에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지휘전공 학생과 7명의 성악 전공 학생이 출연하며 챔버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WMU 챔버 콰이어는 지방 순회 연주와 교회 초청 연주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5월 2일 저녁에는 어바인에 위치한 베델한인 교회(손인식 목사님 시무)에 초청되어 찬양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 12일에는 멀리 하와이에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이은철 목사님 시무) 등 여러 교회를 순회 찬양 하였고 15일에는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WEMA 총회 만찬에 초청되어 연주를 가졌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 찬양 드리기를 소망하는 음악과는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이 모든 사역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World Mission University
1989

4
학생논단

시 / 이인미

이인미
성경신학과
B.A. 15회 졸업
온누리복음교회 사역

사라의 딸들이여

너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사라의 딸들이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복된 여인이 되어라
크게 은총을 받은 여인이 되어라

이제 생산하라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듯
영혼을 품고 양육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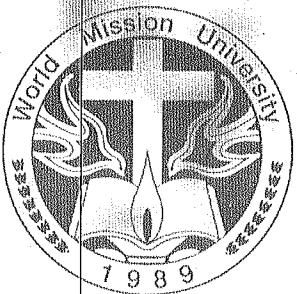
내미는 부리에 부지런히 먹이를 대어 주고
털갈이 하는 몸을 살뜰히 보살펴 주어라

일어나 날기까지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까지

너의 왕관인 믿음의 아들들
너의 사랑스런 복음의 딸들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벧전 3:6)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암 8:11-13)

최자란

최 자 란
성경신학과
B.A. 과정 재학

중보기도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 (렘 33:2,3)

월드미션 중보기도 팀은 월드미션대학교 학생회 산하 부서로서 2006년도 9월 4일(가을학기) 목요 채플 시간에 첫 기도 시간을 가지므로 공식적인 모임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두 사람으로 시작한 기도회가 현재는 8명의 학우(김인철, 고정석, 함성오, 이현일, 여현정, 김혜정, 이지희, 최자란)들이 중보기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이 실감이 난다. 현재 중보기도 팀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4시40분까지 5층 강의실 뒷방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중보기도 팀원들은 바쁜 가운데서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우선 기도 팀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도를 한다. 그런 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중보를 시작한다. 제일 먼저 학교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 제목은 매주 채플 시간에 사용한 주보에 실린 모든 기도 제목을 참고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과 현재 학업중인 학우들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중보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시간은 우리가 주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장 귀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마지막으로, 월드미션대학교 중보기도 팀의 소망이 있다면, 더 많은 학우들의 동참과 함께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난세의 지도자 야고보와 그리고 민족들의 죄악으로 인해 비참하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월드미션대학교 기도의 제단을 지켜가는 것이다. 또한 100년 전 평양대부흥의 배경에는 안산에서 두 명의 여자 선교사의 은밀한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다. 비록 소수가 모인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월드미션대학교 5층 강의실 뒷방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씨너지를 사용하시므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월드미션 선지동산을 통해 교회와 세계를 위한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진 선교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 되어 세계 곳곳에 심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김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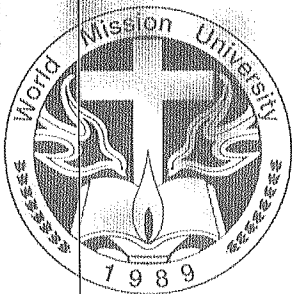
지난 임기를 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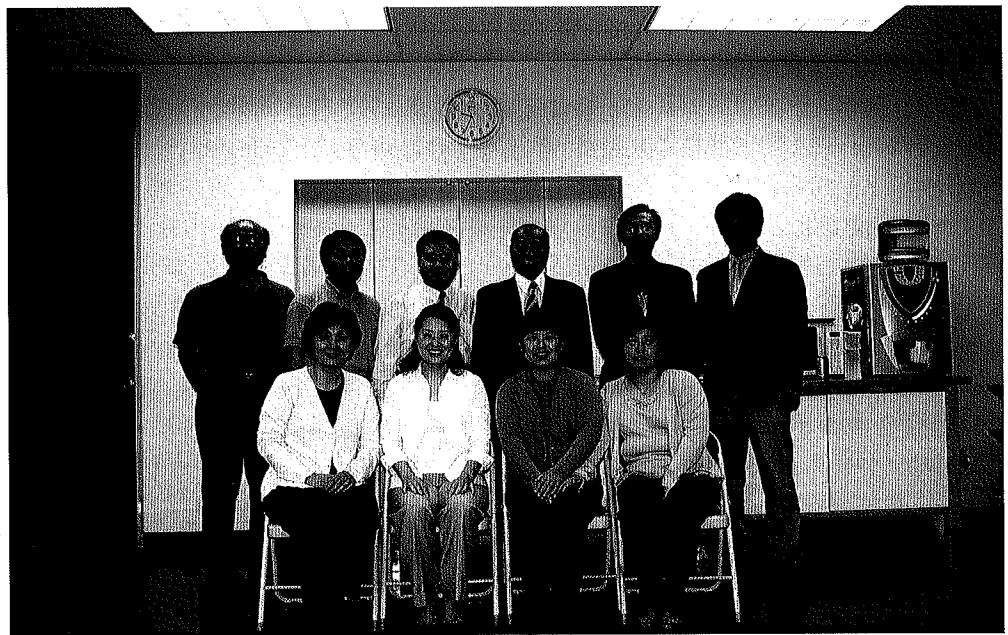
김 덕 호
M. Div. 16회 졸업
밸리중앙장로교회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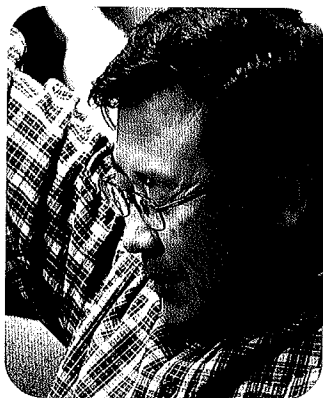
지난 2005년 가을학기가 끝날 무렵 있었던 총회에서 제17대 학생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월드미션을 섬긴지 세 학기가 지났습니다. 처음 선출되었을 때, 함께 일할 임원을 섭외해야 했지만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16대 학생회에서 수고하셨던 구임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의 비전을 이야기 했고, 그 날 이후로 지금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는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기쁨으로 보좌하며 지난 세 학기를 함께 해 오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학교에 재학 중인 학우들의 형편 상 여유 있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음은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낮에는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 그리고 돌봐야 할 가족들...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준비하기 위해 선지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공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학교 행사 때마다 모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섬겨주셨던 학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7대 학생회의 사명선언서는 "월드미션 학생회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력하며, 또한 각 사역 현장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열매맺는 사역을 돕기 위하여 학우를 섬긴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사역을 위해 내적 치유 세미나와 설교 세미나, 그리고 파워포인트 컴퓨터 강좌를 비롯하여 몇몇 시도는 있었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황보다는 열정이 앞섰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감사했던 것은 신학대학 협의회 연합 체육대회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우들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기쁨을 나눴고, 학기말에 있었던 학우들의 가족을 초청한 가족 야유회는 학우 여러분의 학업을 위해 수고했던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의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음악과 학우들의 활동을 통해 학교가 홍보되고 음악회가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섬겨주셨던 많은 학우들의 땀방울은 음악과 학우들의 노력과 함께 월드미션의 발전에 한 몫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숙사 건립을 위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학교 행정 시스템도 전문적인 인력이 보강되면서 한걸음씩 발전하고 있음을 볼 때 월드미션의 가족으로서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학생회도 지난 주간에 있었던 총회를 통해 18대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학생회 임원으로 학교와 학우들을 섬기면서 월드미션 학생회에 필요를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18대 학생회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학우여러분의 동참입니다. 요즘 많은 학우들이 학교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말을 합니다. 늘 좋았지만 더 좋아졌다는 말이겠지요. 이는 학우 여러분이 학교 행사를 비롯하여 학생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했던 결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잘 이어가셔서 18대, 19대,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학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드미션은 학우 여러분이 있기에 월드미션인 것입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저는 월드미션을 떠나게

되지만 동문으로서 맥은 이어갈 것입니다. 월드미션인으로써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성실하게 사역하며 월드미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 17대 학생회장 김 덕호 학우 드림

제 17회 학생회 임원단
이기영, 주익성, 김덕호, 오광탁, 이원희, 김영광,
최자란, 허영애, 윤상숙, 전금자

이강천

이 강 천
성경신학과 B.A. 16회 졸업
동양선교교회

새벽의 약속

1999년 가을, 개혁신학교에 입학하여 2007년 6월 월드미션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으니 대학 졸업에만 8년여가 걸린 것 같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이제 밝히지만,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신학교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속한 편이다.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입학했고, 도저히 적응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했고, 또다시 어쩔 수 없이 복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절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1998년 7월 어느 날, 나는 한국의 한 작은 개척교회 의자에 앉아 새벽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IMF 사태로 평범한 삶이 막을 내렸다. 가게의 문을 닫아야 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흘러갔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자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미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절박하게 기도했고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네 병 든 부모, 그리고 이 작은 교회, 이 두 가지 십자가를 질 수 없겠니?"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더 크게 쓰임 받겠습니다. 더 크게 배워 더 크게 쓰임 받겠습니다. 저를 미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나는 도리질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처음 생각과 달리 기도가 이상하게 변하고 말았다. 아들을 위해 미국으로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쓰임 받겠다고 기도하고 만 것이다. 이틀을 더 기도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믿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 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다. 나는 새벽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어학원에 등록하고 직장을 구하러 다녔다. 그렇게 1년 쯤 지났을까. 등록한 어학원에 문제가 생겼다며 학교를 옮겨가라는 연락이 왔다. 어느 학교로 옮겨가야 하나 생각하던 중, 그때의 새벽의 기도가 떠올랐다.

'아, 그랬었지! 신학교에 다니기로 했었지!'

딱히 신학교라고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나는 신학교를 염두에 두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찾으신 것이다.

개혁신학교에 입학을 했다. 순탄하지 않았다. 체질상 맞지 않았다. 과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겪는 갈등이 힘겨웠다. 나는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보셨지요? 저는 이런 놈입니다. 두 손발 다 들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보셨지요, 하나님?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을 부르셨지요? 그렇지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비겁한 아빠가 있을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아들에게 떠넘기고 학교를 그만 둔 것이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지만 다음부터는 신나게 잘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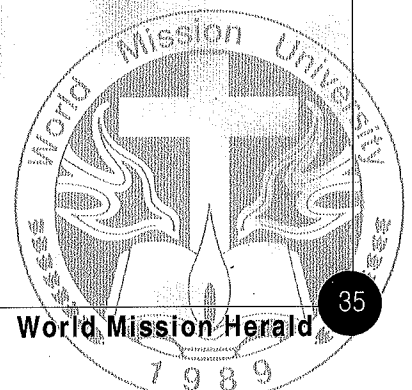
그런데 이것은 또 웬 날벼락인가? 911 사태가 일어나고 모든 유학생은 등록을 해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생겼다. 더 이상 어학원에 있을 수 없었다. '스시학교로 갈까? 한의대에서는 나를 받아 줄까? 다른 곳은 없을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숨을 곳이 없었다. 등록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피할 곳이 없다면, 그렇다면 제가 가장 괴로워하는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바로 다음 날부터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중을 더 여쭈어보아야 했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요."
이 문제도 다음 날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월드미션신학교에 등록을 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신학보다 소설이 좋다. 직장과 학교를 다니며 소설을 쓰자니 힘이 든다. 3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소설 쓰기에 집중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려고 생각해왔는데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다. 어쩔 수 없이, 그 새벽의 약속대로, 공부는 또 계속해야 할 것 같다.
미국에 오기 전 내 직업은 이불 장수, 그 전 직업은 운전기사, 그 전 직업은 택시기사였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자격증이라고는 운전면허증 밖에 없었다. 어려서부터 소설가가 되는 것을 꿈꾸었지만 실패해 포기하고 폐인처럼 살았다.
그런 내가, 그 새벽의 기도로 은혜를 입었다. 미주한국문단에 소설가로 데뷔하게 되었고, 대학도 마치게 되었고,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2008년 중으로 한국문단에 데뷔하여 10년 동안 소설을 쓰고, 만 육십이 되는 해인 2018년에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나가는 꿈을 꾸고 있다. 이것이 순전히 나만의 계획인지는 모르겠다.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다.

삶을 낭비하지 말라.
다만 한 번 뿐인 삶,
곧 지나가리.
다만 남는 것,
그리스도 위한 일이리.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을 가훈으로 써 붙이고 오늘도 올려다보고 있다.

이기영

월드 미션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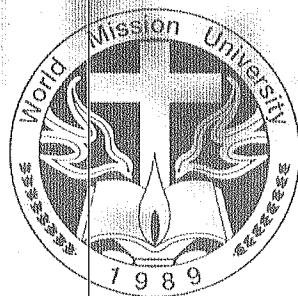
이 기 영
성경신학과 B.A. 16회 졸업
나성한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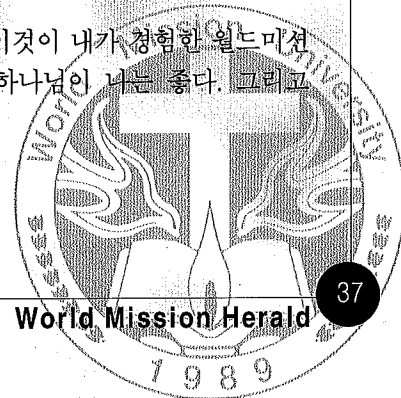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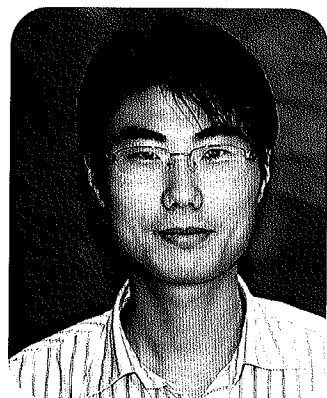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를 물으면 나는 서슴없이 '만남' 이라고 말을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은 만남을 통해 인격과 활동 반경 내용이 정해지고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나에게는 지금의 내가 되는데 도와준 몇 가지 소중한 만남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나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질 수 있었다. 믿음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미래를 보장 받았고 그러한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으며 사랑을 배워가면서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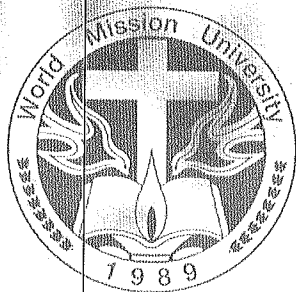
이러한 나에게 또 다른 소중한 만남은 아내와의 만남이다. 나는 교회 청년부 시절에 하나님께서 짝을 지워주신 좋은 아내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으며 행복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딸과 아들을 얻었고 그 자녀와 함께 네 식구가 가정이라는 조그마한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교인이 하나 더 늘었다. 노인 아파트에 혼자 사시던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자 혼자있지 못하게 되어 우리 교회에 옮기신 것이다. 노인 및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대형교회(양로원)를 마다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겠다는데 어느 교회가 오겠다는 교인을 거부하겠는가? 하지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띤 교회에 또 다른 교인을 맞이하는 일은 그리 쉽지는 않은데 그러한 결정을 아내가 도와 주었다. '힘이 들지만 약간의 치매와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섬김을 배웠고 그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며 그 사랑이야 말로 참된 축복이며 그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이라는 아내의 말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며 그런 마음을 가진 아내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하나님께 나 또한 감사 드릴뿐이다. 그런데 그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신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고 만들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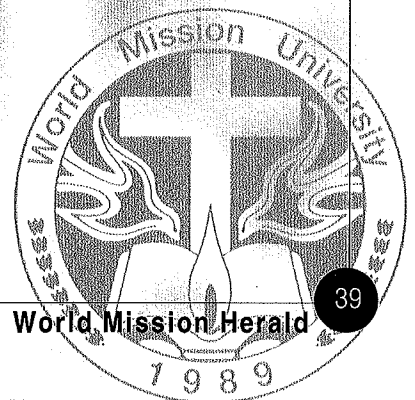
그것은 월드미션대학과의 만남이다. 월드미션대학은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었다. 나는 이곳에서 좋은 교수님, 좋은 학우들을 참으로 많이 만났다. 또한 학생 예배를 통하여 좋은 목사님도 만났고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직원들도 만났다. 교수님, 학우들, 목사님,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 모두가 귀한 만남의 얼굴들이다. 그들은 모두 마음이 따뜻하다. 그들과의 만남은 나 자신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와 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별히 월드미션 대학의 각 과목의 교수님들은 나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식과의 만남을 제공하여 주었다.

그동안 나는 성서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학과목을 통하여 성서를 바로 보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눈과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 또한 여러가지의 상담학 과목은 앞으로 내가 하여야 할 사역에 대해 유학생 가정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할 것을 제시하여 주었고, 상황화 신학은 보다 폭 넓은 선교의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게 하면서 프로젝트를 통하여 할로윈 데이를 상황화 하여 기독교인의 행사로 흡수시키는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숙제로 남겨 놓게 하였다. 선교학 개론은 그룹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슬람 선교전략의 하나로 미국내의 아랍인들을 집중 공략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곳의 아랍 목사님과 연합하여 정기적인 행사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행사는

계속하여 참여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그밖에 지도력 개발, 커뮤니케이션, 논문 작성법, 영성개발, 설교학, 조직신학, 기독교윤리학 등 모든 학과목들은 나 자신을 이전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것은 바로, 각 과목을 맡아 열심히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 결과 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졌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되어 나의 믿음을 더욱 바르고 굳게 세워 주게 되었으며 그 믿음은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경제적인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헤쳐 나갈 수가 있었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에게 복이 되었으며 그 복의 근원인 지식과 지혜를 월드미션대학에서 여러 교수님들을 통하여 만나게 된 것이다. 지식과의 만남을 도와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뿐이다.
월드미션을 통해 경험한 또 다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일(service)과의 만남이다. 나는 처음 입학했을 당시, 학교에서 공부만 잘 하면 된다는 생각과 함께 여러가지 행사때마다 참여를 권하는 요청과의 갈등속에서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행사 참여하기를 꺼렸었다. 하지만 진행자들의 권유로 또는 학과목 숙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가지 행사 또는 모임에 어느덧 하나 둘씩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과목별 프로젝트를 위한 모임, 그룹토의를 위한 모임, 기도 후원의 밤 준비 모임과 발표를 위한 모임, 무언극 공연, 학생가족을 위한 야유회, 신학교 연합 체육대회, 학교에서 실시한 단기선교, 학생 기도회 참여, 음악과 발표회를 돕고 참여하는 일, 학생회 봉사, 식당봉사, 사진 찍는일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참여하게 되면서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되는 것과는 또 다른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간접체험이었지만 행사의 참여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것은 직접체험의 귀한 만남의 시간이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서로를 알고 이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우리 학교는 공부 이외의 이러한 만남의 기회가 다른 학교보다 많은 것 같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나눔의 시간도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다른 학교 학생이나 교수가 우리 월드미션대학을 부러워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만약 내가 공부만 하고 졸업하게 된다면 무언가 반쪽만 채우고 졸업하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내 자신이 월드미션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싶고 아울러 여러 학우들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경험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권하고 싶다.
지식과 삶을 함께 경험하는 크리스천 공동체의 만남의 장소. 이것이 내가 경험한 월드미션 대학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나는 좋다. 그리고 사랑한다.

김용일

김 용 일
성경신학과 B.A. 16회 졸업
동양선교교회

졸업을 앞두고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내가 상담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은 아니다. 20대의 한참 혈기 있는 젊음의 때를 맞이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었다. 나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가지고 젊음의 힘으로 무엇이든 열심히만 하면 뜻이 보이고 길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진로의 문제가 되었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지 신앙적인 어떤 것이 되었든지 진실한 마음과 나의 노력이 만나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내 앞에서 쑥쑥 열어주시고 펼쳐주실 거라는 희망에 찬 생각들이 내 안에 있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희망에 듬뿍 찬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서 발을 한 발자국 디뎌보기도 전에, 내가 감당하기에 참으로 벅차 보이는 굵직굵직한 일들이 나의 삶 속 여기 저기서 터지기 시작했다. 오직 젊음이란 이름의 혈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않고 부딪히도록 나 자신을 강하게 지탱시켜 주었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언제부턴가 내게서부터 조금씩 사그라지는 내 안에서의 혈기를 경험하며, 유일하게 나의 것이라고 자부하고 언제라도 내가 취하고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조차도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젊음이란 내게서의 유일한 힘조차, 마치 낯선 이방인처럼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 보면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절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나의 모든 결심과 각오와 의지를 들여서 해보려고 해도 세상에는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이제까지 진실된 마음과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께 구하는 열심의 기도만 있다면 모든 것들이 다 잘될 줄로만 알았던 나에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고 인정해야만 했던-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라는 냉혹한 현실의 자각. 이러한 절망을 깨달아가면서 어느덧 잠시 잊고서 한 쪽으로 내팽개쳐두었던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이 내게서 삶의 의미란 것을 부여해줄 수 있는가 ......' 나의 20대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러한 질문들이 무색할만큼 그러나 그 어떠한 명쾌한 답의 흔적조차도 나는 찾을 수가 없었다. 또 다시 이러한 질문을 한 쪽 구석으로 밀어놓으려고 할 때, 어떠한 뭔가의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똑같은 인생의 질문들을 하는 내가 아닌 다른 타인들, 바로 나의 가까이에 있는 그들의 발견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고 싶어했던 어떠한 인생의 의미란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버텨내기 힘들 만큼 그렇게 아팠던 것들이, 그래서 때로는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려고 했던 그 숱한 일들이,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하는 단지 그것만으로도 내가 인생을 살아갈 충분한 목적과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내가 오직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외톨이처럼 혼자 그것을 감당하며 해결해보려고 했을 때 찾지 못했던 의미와 답들을 찾게 해준 것이다. 상담이라 하면 보통 다른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적절한 충고와 피드백을 해주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상담가라고 하면 많은 지식들과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갖춘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상담이란, 자신을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알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소중하게 깨달아 안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주위의 그 누군가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다면, 아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만 앞으로 디딜 조금의 바램과 용기만이라도 있다면 그 누구라도 훌륭한 상담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참으로 가치있고 훌륭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을 따뜻하게 들어주는 것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도 또한 없을 것이라는 흐뭇한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헨리 나우웬이 말한 "상처입은 치유자" 라는 말을 마음 속으로 한번 되새겨보며 상담이라는 좋은 과목을 개설해준 월드미션대학과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들을 가르쳐주시는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김정신

김 정 신
음악과 M.A. 16회 졸업
열린문교회

음악과(MAM in Conducting)에서 보낸 시간

불과 2여년 된 음악과의 짧은 역사 속에 참 많은 것들을 얻고, 배우며 또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세월인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었다 싶었는데 벌써 졸업생으로서 원고를 부탁 받았을 때 내심 쓰기가 싫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공부하고 연주하며 같이 부둥키던 일상 속에서 이젠 Observer가 되어 같이 정들고 아끼던 사람들과 한 칸 물러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저에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멀지 않은 작년 4월에 우리 음악과는 처음으로 학교와 합창단의 홍보를 위해 처음으로 Concert Tour를 가졌습니다. 1차는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성공적인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그 다음날 Cerritos로 2차 연주회를 떠났습니다.

연주 시작 15분전, 연주 장소의 피아노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 옮기던 중에 그냥 허리가 빠져버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음악과 조교로서 이것 저것 준비 할 것이 많다 보니 피로가 좀 누적이 된 탓이었나 봅니다. 연주 15분을 남겨두고 이미 객석에는 청중들로 자리는 채워져 가는데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피아노 옆에 덩그러니 쓰러져있는 저는 단원들의 부축으로 거의 질질 끌려서 연주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모든 단원들은 놀라고 누워있는 나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 많은 이들의 걱정과 세심한 배려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음악과의 사랑함과 화합됨 그리고 단결 응집된 마음, 마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우린 매일 각자의 집에서 소식을 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악과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기쁜 일, 축하 할일, 고민들, 아픔이 있을 때는 같이 울며 기도하고, 비록 싸이버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통해서 서로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과 그리고 음악과가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미래적이고 화합되는 학생회의 모습을 위해서도 타 학과 학생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지난 학기 Washington주와 Oregon주의 순회연주에 이어 곧 Hawaii 순회연주도 떠납니다. 학생 각자가 많은 경비를 부담하여 떠나는 연주Tour입니다. 개인의 여흥을 위해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월드미션 대학교의 이름과 음악과 그리고 WMU CHOIR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떠납니다. 가는 곳곳 마다 정제된 하모니와 높은 수준의 합창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그 산지가 아름다운 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처소로 변하며 은혜로운 찬양으로 인해 이민사회와 타 민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전파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미국생활 30년 속에 이렇게 감동적인 소리는 처음이" 라며 눈물을 훔치시고 멀리까지 저희를 배웅하신 어느 장로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즐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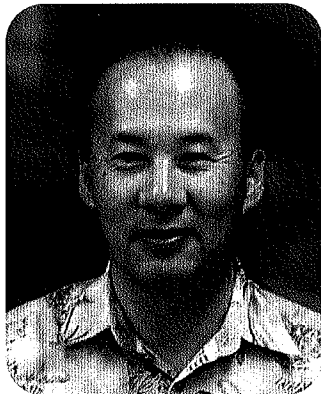
찬양하며 다니기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로 충분하다 여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십시오. 그리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아낌없는 조언도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주신 달란트로 어느 곳이든지 가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음악과를 사랑하고 또 나의 모교가 더욱 발전 되기를 원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웹사이트 주소는 싸이월드 클럽의 http://club.cyworld.com/wmumusic 입니다.

이홍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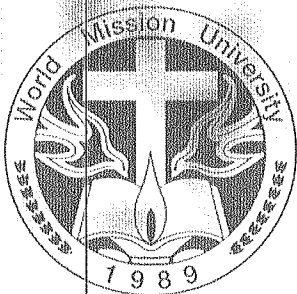
졸업을 앞두고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이 홍 주
M. Div. 과정 재학

이스라엘 어느 이름없는 시골 마을이 온통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 있다. 올해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늦은 비가 흡족하게 내린지라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연신 벙실거린다. 더우기 아랫 마을 아저씨 셋째 딸의 혼례 준비로 마을 처녀들은 너 나 없이 들떠 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오후부터 시작된 축제. 마을 처녀들은 준비한 등을 들고서 신랑을 기다린다. 한밤중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다 지친 마을 처녀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잠결에 신랑이 나타났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 다 일어난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처녀들은 친구에게 기름을 꾸어 달라고 하지만 거절 당하고, 급한 마음에 동네 기름집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꼭 잠겨 있고 깊이 잠든 가게 아저씨는 다급하게 두드리는 처녀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신랑의 행렬은 신부의 집에 도착하였고 평소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 처녀들의 비유 속에서 닫혀진 문, 준비하지 못한 기름, 깨어 있지 못함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본다. 닫혀진 문이란 나에게 주어진 생의 기한이 끝난 뒤 이 땅에서 살아온 생의 내용을 들고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생의 마감의 때가 가까왔어야 잘못 살아온 지난 시간, 낭비하였던 나의 모든 것들, 열심과 성실하지 않았던 삶의 내용들. 생의 마감이 가까와서 그제야 깨닫는다면. 이미 시간은 너무 많이 지나왔고 돌이키기에는 때가 너무 늦어버린. 이것이 미련한 처녀들이 겪는 당혹감과 거절감. 기름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남은 시간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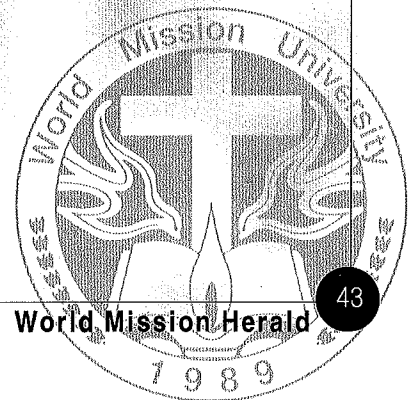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 신앙의 전 여정에 걸쳐서 준비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된 나의 모습이며 열매들이 아닐까? 그리고 바로 이 기름이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찾고 계시며 요구하시는 것이리라. 그러기에 이 기름은 잠시의 노력으로 준비되어질 수 없으며, 빌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사다가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름을 나누어줄 수 없다고 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들이 인색하며, 딱한 처지에 있는 다섯 친구들을 도와주기를 거절한 매정한 자들 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름은 나 자신의 것이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실망과 좌절과 때로는 의문과 아픔의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소망을 지켜가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준비한 기름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만의 기름이기에 이 기름은 동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헌신을 고백하지만 나의 삶속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비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등에 담을 수 없는 자격 미달의 기름은 어떤것들이 있나 생각해 본다. 때로는 삶 속에서 신앙의 유행을 따르는 모습도 있었고, 모방하는 신앙 활동도 있었다.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좇으며 새로운 무엇이 있지나 않나 하고 기웃거렸다. 좋은 것은 배우고 본받아야 하지만 모방하는 신앙, 나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은 팽개친 채 기성복처럼 나의 신앙을 급조하려 하였으며 조급해하기도 하였다. 외형적 신앙 활동으로 자신을 채우고 측정해보려는 유혹들에 넘어진 채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온 것은 모두가 나의 기름이 될 수 없다. '깨어 있어'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며, 또 이러한 것들에서 돌이키며, 주님과의 은밀하고도 친밀하며 지속적인 동행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되어지고 오래갈지라도 인내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준비되는 나만의 기름을 준비하여야 함을 깨닫는다.

나만의 기름이기에 독특하며 개성이 뚜렷하며 강하고 배타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에, 누구의 것과도 구별되며 각자의 독특한 향내가 있으며 용도가 구별된다. 안타깝게도 친구의 기름은 친구의 등 이외에는, 나의 등을 밝히는데는 사용되어질 수 없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이 나누어 줄 수 없고 배타적인 각자의 기름이 탈 때 등불이 빛을 내면서 서로를 밝혀 준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 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마 5:14) 라는 말씀처럼 이런 빛을 내는데 사용되어지는 기름이 나의 삶을 통해 풍성히 준비되어 주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생을 그려 본다.

Photo

학생들의 어렸을 때 모습

김혜정 성경신학과 B.A. 16회 졸업

"주님의 말씀을 외우며 묵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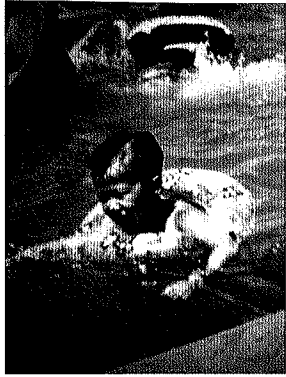
김현욱 성경신학과 B.A. 16회 졸업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3)

박정애 성경신학과 B.A. 16회 졸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신 그 분의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지체되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그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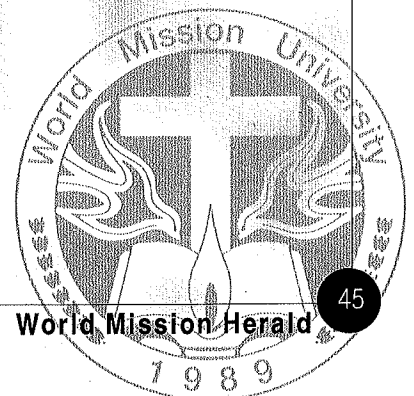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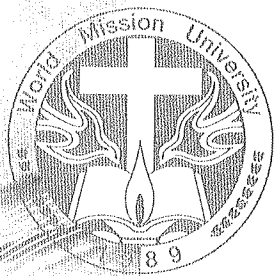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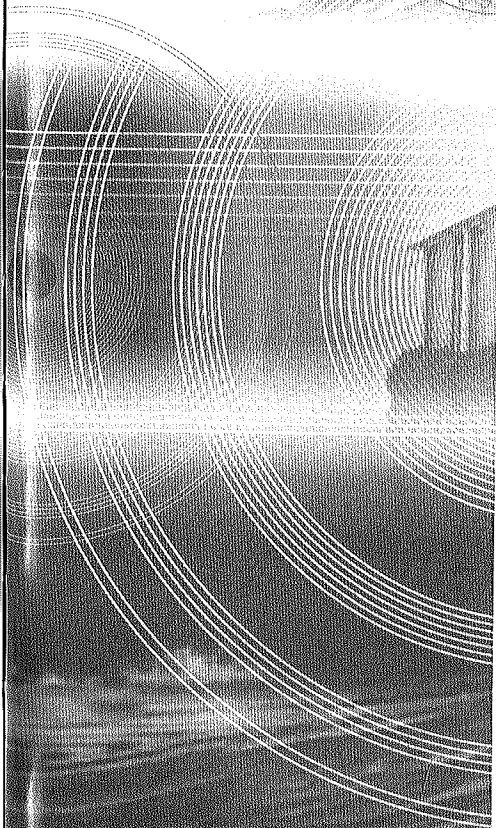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장주언 음악과 B.A.과정 재학

"학우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1서 4:7-8)

김주영 음악과 M.A.과정 재학

"섬기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최고의 음악인들!
월드미션사람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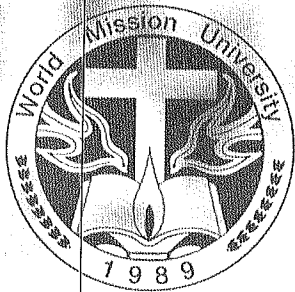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5 월드미션대학교 후원자 명단

이사회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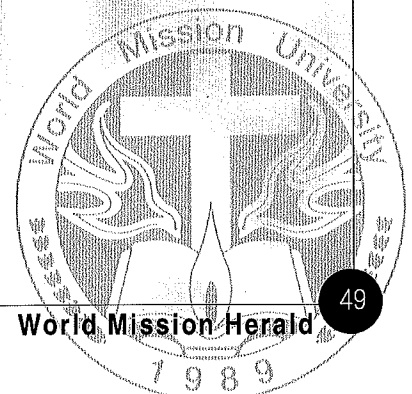
강모세 / 곽건준 / 곽동호 / 금재연 / 김건태 / 김계환 / 김금자 / 김대성 / 김두환 / 김범수 / 김사라 / 김상연 / 김세웅 / 김영국 / 김영만 / 김영주 / 김인희 / 김재권 / 김정기 / 김지수 / 김진광 / 김진영 / 김진호 / 김창국 / 김창범 / 김창호 / 김채광 / 김청익 / 김충일 / 김해룡 / 김현숙 / 김휘웅 / 남조웅 / 마사웅 / 마창식 / 명잔 / 박리챠드 / 박재호 / 박제임스 / 박태호 / 박평식 / 방연옥 헬렌 / 배기복 / 백형권 / 석태운 / 성광수 / 손석효 / 손주영 / 송인하 / 신동순 / 신병모 / 신재권 / 신재철 / 안광석 / 안의식 / 안정삼 / 양근수 / 엄경자 / 엄창웅 / 여상직 / 오광찬 / 오상헌 / 오재선 / 오태근 / 유문근 / 유수잔 / 윤성환 / 윤정림 / 윤정아 / 윤태중 / 이규태 / 이미옥 / 이병인 / 이병주 / 이승인 / 이재현 / 이정남 / 이정원 / 이중용 / 이태종 / 이필섭 / 이한길 / 이형규 / 이효성 / 이효신 / 임동선 / 임승천 / 임승표 / 임의진 / 임진수 / 장기준 / 장코스모스 / 정광자 / 정문섭 / 정봉모 / 정중섭 / 정진식 / 조왕하 / 조용직 / 조정현 / 주성천 / 진성백 / 최근홍 / 최선영 / 최종원 / 최형기 / 최호춘 / 한긍리 / 한동열 / 한승수 / 한주영 / 한평우 / 함수현 / 허명 / 홍성식 / 황재길

연합회 후원

LA OMC (강준민) / 다우니 OMC (남종성) / 로간 OMC (조항목) / 로마한인교회 (한평우) / 발렌시아 OMC (한광덕) / 뷔츠브룩한인교회 (강성구)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 세리토스 OMC (석태운) / 쌍파울 OMC (황은철) / 씨애틀 OMC (이중용) / 아리조나 OMC (김용식) / 알라스카 OMC (이태종) / 오레곤 OMC (이상호) / 유타 OMC (전성호) / 주님의 선교교회 (이인검) / 중부 OMC (임병택) / 콜로라도 OMC (윤경호) / 팜스프링 OMC (이재현) / 한미중앙교회 (김건태) / CLMM (군사랑선교회)

동문회 후원

강성구 / 강태준 / 고영보 / 권인순 / 권재옥 / 김경례 / 김동준 / 김승원 / 김용식 / 김인희 / 김창국 / 김추자 / 김효복 / 남조웅 / 박인호 / 방헬렌 / 백희숙 / 양덕승 / 양성반 / 우상문 / 유정수 / 윤경호 / 윤병완 / 윤성환 / 이명희 / 이상혁 / 이인검 / 이재현 / 이정남 / 이희성 / 임금화 / 임양택 / 장원욱 / 장코스모스 / 정연희 / 조배성 / 조성은 / 조은혜 / 조항목 / 조화진 / 진성백 / 한광덕 / 한석규 / 한은희 / 홍표란

기도후원회

동필녀 / Alvarez, JaRan Choi / Bae, DongLim / Bishop, Chea Sun Shin / Chae, Sung Hee / Chang, Cosmos / Chang, Yoo Jin / Chang, Hye Jin / Cho, Jae Sung / Cho, Myung Hee / Cho, Sang Cun / Cho, Seoghwan / Choi, Hyun Sook / Choi, Ja Ran / Choi, Min Young / Choi, Young Soon / Chon, Johnny / Chun, Daniel J. / Chun(Nam), Kasey / Chung Seong Ja / Chung, Ki Yeon / Chung, Young A / Doh, Eun Joo / dong, Pil Ryeo / F.S.W. / Ham, Jung Hee / Han, Esther Mi Kyung / Hahn, Mi Kyung / Hong, Jung Nam / Hur, Myong / Im, Sung Sil / Jeon, HaeKyung / Jeon, Yong Gyu / Jeong, Soon Duk / Jeong, Young Sook / Jung, Bong Mo / Jung, Young A. / Kang, Christine / Kang, Daniel Dae Hong / Kang, Tae Joon / Kang, Young Sun / Kim, Bok Sun / Kim Christine / Kim, Chun Hee / Kim, Chung Joo / Kim, David / Kim, Dae Young / Kim, Duck Ho / Kim, Duk Kil / Kim, Hyun Sook / Kim, Evelyn S. / Kim, Genie / Kim, Grace / Kim, Hyun Ja / Kim, Hyun Kil / Kim, Kwang Hoon / Kim, Kyong Nyo / Kim, Kyung Sook / Kim, Peter Kwans / Kim, Rachel / Kim, Sang / Kim, Soyeong / Kim, Steve / Kim, Yong Chorl / Kim, Young Jong / Kwon, Bong Nyo / Kwon, Hyuk Min / Kwon, Jung Ae / Kwon, Moon Ja / Lee, Chun Do / Lee, Daniel S. / Lee, Ellen W. / Lee, David / Lee, Eunice H. / Lee, Hannah / Lee, Hong Il / Lee, Jessica / Lee, Jin Dong / Lee, Jenny / Lee, Jessica Yong C. / Lee, Jong Ae / Lee, Jong Do / Lee, Keum Hee / Lee, Ki Young / Lee, Kyudong / Lee, Luk Rim / Lee, Myo Hwan / Lee, Sang Hyouk / Lee, Sang Tae / Lee, Si Ja / Lee, Sok Chu / Lee, Soo Hoon / Lee, Sung Yon / Lee, Won Yong / Lee, Won Young / Lee, Yong C. Jessica / Lee, Young / Lee, Young Ae / Lim, Hyun Jae / Lim, Sung Sil / L.S.I. / L.T.M. / McLain, Ginny / Nam, Lydia / Nam, Sang Il / Nokdoo Graphic Printing / Oh, Hee Jung / Oh, Peter Sungtae / Pae, David / Pae, Eung-Kwon / Park, Byung Mo / Park, Ji Seon / Park, Jin Sang / Park, Jung R. / Park, Kap Young / Park, Mi Sung / Park, Mi Sook Choi / Park, Myung Hee / Park, Ruth Kim / Park, So Ra / Park, Soo Bok / Park, Sunki / Park, Sung Soo / Park, YoonWoo / Sans Souci, LLC / Shin, Boo Nam / Shin, Hyun Woo / Shin, Kyong Ho / Song, Moon Sang / Suh, Dong Min / Sumpaio, Mun Cha / Um, Kyung Choon / Um, Sang Ho / Won, In Hae / Woo, Sanghun / Yang, Duk Sung / Yang, Young Eun / Yeo, Byung Hyun / Yeo, Byung Hyun / Yeo, Esther / Yeo, HyunJung / Yeo, Uk Jae / Yoo, Gil Sang / Yoo, Sung Ryu/ Yoon, Sang Suk / Yoon, Sang Wook

동양선교교회 기도후원회

감애순 / 강금석 / 강병례 / 강병목 / 강선주 / 강승묵 / 강영혜 / 강정희 / 강종흥 / 강준민, 희종 / 강지미 / 강한나 / 강형묵 / 계옥주 / 고덕유 / 고은현 / 고정희 / 고주현 / 곽광례 / 곽병재 / 구경훈, 연호 / 구자원 / 권재환, 이경미 / 금남이 / 금재연 / 김경이 / 김경자 / 김경호 / 김경호, 현주 / 김금동 / 김금례 / 김금자 / 김기성 / 김기옥 / 김기자 / 김나영 / 김낸시 / 김동석 / 김릇 / 김명진 / 김문숙 / 김문희 / 김미정 / 김보환, 영의 / 김삼중,은희 / 김선영 / 김선욱, 혜랑 / 김선혜 / 김성권 / 김세민 / 김수지 / 김소리 / 김신환, 박슬기 / 김영숙 / 김영애 / 김영옥(0403) / 김애순 / 김옥남 / 김옥순 / 김옥임 / 김옥자 / 김옥저 / 김우월 / 김인곤 / 김인애 / 김재순 / 김재용, 화실 / 김재한 / 김정우 / 김정이 / 김정화 / 김정환, 선희 / 김조안나 / 김종길 / 김지성 / 김지윤 / 김창범(예은) / 김추자 / 김충걸 / 김충일, 복순 / 김헬렌 / 김혜순 / 김혜영 / 김혜자 /김혜정 / 김홍선, 성숙 / 김홍순 / 김효신/ 나승자 / 남기문 / 남기안 / 남만식 / 노애린 / 노재희 / 노정민 / 마정순 / 문동숙 / 문정희 / 문지민 / 문지원 / 박경남 / 박경희 / 박논세 / 박송학 / 박수복 / 박수형 / 박연숙 / 박영부 / 박옥 / 박옥희 / 박재옥 / 박정애 / 박종순 / 박청원 / 박캐롤, 영환 / 박하늘 / 박현숙 / 박환, 정희 / 박호석 / 방연옥 / 배성은, 혜영 / 백기돈, 봉님 / 백형래 / 성광수 / 성병헌 / 손홍심 / 송대순 / 송숙희 / 송혜숙 / 승정희 / 승지수 / 신정민 / 신태문 / 신혜나 / 심옥선 / 안성실 / 안옥순 / 안의식, 옥자 / 안종순 / 안현숙 / 양순옥 / 양승달 / 양아경 / 양영옥 / 양지훈, 진희 / 양학봉 / 엄경춘 / 엄옥엽 / 여상락회 / 염혜경 / 오광찬 / 오명엽 / 오명순 / 오윤표 / 원세현 / 원재수 / 유금자 / 유문식 / 유순의(9043) / 유월선 / 유정숙 / 유태분 / 유현숙 / 윤건, 혜건 / 윤미진 / 윤선영 / 윤에스더 / 윤응숙 / 윤정림 / 윤준 / 윤창섭 / 윤희석 / 윤희원 / 이경순 / 이광열 / 이규현. 명순 / 이기남 / 이그레이스 / 이금선 / 이금춘 / 이레베카 / 이마리아 / 이명섭 / 이명순 / 이명일 / 이병걸 / 이복선 / 이성희 / 이순섭 / 이승기 / 이연순 / 이영희 / 이옥선 / 이원석 / 이윤동 / 이은혜 / 이인숙 / 이인식 / 이재순 / 이정선 / 이정숙 / 이정순 / 이정원 / 이종만, 수단 / 이종찬, 경혜 / 이종현 / 이주연 / 이주희 / 이중배 / 이진선 / 이찬봉 / 이태길 / 이황윤 / 이형영 / 이혜숙 / 이효신 / 이희범 / 임경숙 / 임동선 / 임금화 / 임동진 / 임은점 / 임은화 / 임정자 / 임재순 / 장승자 / 장영애 / 장원욱, 지혜 / 장정숙 / 장진재 / 전도화 / 전영식 / 전윤진 / 전중하 / 정광자 / 정데보라 / 정성길 / 정영순 / 정영옥 / 정인숙 / 정의량, 현숙 / 정의정, 용주 / 정행화 / 정화관, 미석 / 정희성, 선희 / 제임스 스미스 / 조명희 / 조순선 / 조순애 / 조아나, 명기 / 조웅래 / 조윤희 / 조향숙 / 조현희 / 주익성 / 주정현 / 주화순 / 진강일, 예경 / 차귀동 / 차순임 / 차영숙 / 천영민 / 천효수 / 채순임 / 최남숙 / 최명용 / 최미선 / 최미정 / 최수남 / 최승희 / 최신자 / 최영은 / 최의송 / 최자란 / 최재호, 미경 / 최종열 / 최주희 / 최형기, 미자 / 최희숙 / 치동열 / 한규환, 영숙 / 한동희, 만혜 / 한승수, 승향 / 한안나 / 한영희 / 한용섭 / 한인실 / 함재목 / 함정희 / 허명 / 홍기영 / 홍명주 / 홍병희 / 홍세욱 / 홍수현 / 홍옥선 / 홍은옥 / 홍정혜 / 홍재은 / 홍조시아 / 홍주희 / 황봉자 / 황재룡, 미자 / 황화진 / 회원번호9421-2 / Jin, Hui / Kang, Jimmy / Kang, Tommy / Kim, Stacy J. / Lee, In Sook / Lee, Rebecca S. / Myung, John / Yoon, E.S.

월드미션대학교는
복음주의적인 교육 기관으로써
성경 중심의 선교적인 열정을 가진 교회와 세계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는

미연방교육국 정식인가 학교

월드미션대학교는 미연방교육국에 등록되어 있는 기독교 대학인준 협의회(ABHE)와 범기독교 대학협의회(TRACS)의 회원이며, 신학대학원 협의회(ATS)의 준회원 학교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위는 미국의 주류기독교 대학과 대학원에서 인정받습니다. 또한 본교의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미국군목장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준있는 정규 학위 과정

월드미션대학교는 대학원과정과 대학과정의 정규학위과정이 있습니다. 대학원과정에는 목회학석사, 음악석사, 신학석사(선교학 전공, 기독교 교육학 전공, 상담학 전공) 프로그램이 있으며 학부과정에는 성서학 학사(선교학 전공, 기독교 교육학 전공, 상담학 전공, 음악전공), 음악학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ESL)/유아교사 자격증 프로그램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주정부 교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강사진과 학습의 최대화를 위해 소수정예반을 편성하고 있는 집중영어 프로그램(ESL)이 있으며, 기초부터 고급까지 6단계로 분리된 체계적인 교과과정으로 월드미션대학교의 정규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교사와 원장 자격증 과정(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실기와 이론 중심의 음악학과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전문음악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음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과정과 대학원과정에서 음악프로그램이 있으며 오디션을 거쳐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음악과 특별장학금혜택이 주어집니다.

원격 교육 / 통신 프로그램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학업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학교에서 수강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원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VD와 자율학습교재를 통하여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공부하여 미국정식인가가 있는 대학교와 대학원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집학위 및 모집학과

① 모집학위 및 모집학과

학위과정	학과/전공	졸업이수학점	연한	지원자격
B. A.	성경신학과	126	4	고졸
B. A.	음악과	136	4	고졸
M. A.	신학과	64	2	대졸
M. A.	음악과	48	2	대졸
M. Div.	목회학과	96	3	대졸

② 월드미션 음악과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음악사역자를 양성하는 학과로 tradition과 contemporary 음악사역자들의 영성과 음악성을 NASM에 준하는 커리큘럼을 통해 체계적으로 훈련합니다.

③ 유아교육 교사, 원장자격증 프로그램

기독교 정신을 가진 유아교육교사, 원장양성을 위한 자격증프로그램으로 한 과목에 3학점에 해당하는 6과목, 총 18 학점을 한학기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④ 원격교육(통신과정)

학업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가정, 교회, 직장의 여건으로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강의안, DVD교재, 인터넷을 사용하여 융통성있는 학습방법으로 정규학위를 받을 수 있는 통신과정입니다.

⑤ IEP/ESL(집중영어 프로그램)

기초부터 고급까지 모두 6단계 과정으로 구성된 체계적이고 탁월한 영어훈련프로그램으로, 수강 후 월드미션대학교 정규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총 장: 임동선 박사 Ph. D., D. Min., 부총장: 강준민 목사, Dr. John E. McKenna, Ph. D
500 Shatto Pl. #600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5-2322, Fax. (213)385-2332 E-mail: info@wmu.edu Website: www.wmu.edu.

2007

World Mission University

www.wmu.edu